

한 편의 초상화가 이어준 특별한 인연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 감동케 한 전북 출신 화가 현동욱

작품전시회에 출품한 조수미 성악가의 초상화(작품명: 황금 티아라를 쓴 조수미) 한 점이 우연의 일치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수미 성악가에게 알려지고, 조수미 성악가가 전시된 자신을 그린 작품이 마음에 들어 소장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외국에서는 작가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던 한 무명 화가가 조수미 성악가를 생각하며 초상화를 그렸다고 한다. 작품에는 세계적 성악가인 조수미 소프라노를 명성에 걸맞게 초상화에 황금 티아라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왼쪽부터 조수미 성악가, 현동욱 작가

현동욱 작가는 작품전시회 날 자신의 작품을 인스타그램(@hanssemgrove)에 작품을 올려놓았는데, 이 작품을 조수미 성악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두 예술가의 교류가 시작됐다.

현동욱 작가의 작품전시회 날 조수미 성악가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조수미 성악가는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자신의 초상화 작품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작품을 본인이 소장해 포르투갈에 있는 자기 집에 걸어놓고 매일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끼게 되었다고 한다.

평소에 현동욱 화가는 조수미 성악가가 금관문화훈장에 추천된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한 일이 없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도 기막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다.

현동욱 화가는 평소에 세계적 성악가인 조수미 씨의 열성팬으로 너무 조수미 성악가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이런 인연으로 조수미 성악가는 현동욱 화가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조수미 씨는

전북까지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른 시일 내에 전주에 꼭 한번 와서 관광하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여 현 화가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조수미 소프라노에 대하여 세계적인 명지휘자 카리얀은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극찬했다고 하며, 주빈 메타는 "100년에 한 두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다"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조 소프라노는 애국심이 강한 성악가로 유명하다.

오래전에 영국의 대형 음반 회사에서 음반을 발매하기로 했는데, 이때 '보리밭'이라는 한국 가곡을 꼭 넣어달라고 하여 이를 관철한 일화는 너무 유명하다.

조 성악가는 한국의 국제적 대형 행사에 초대하면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어도 취소

하고 달려와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애국심 강한 소프라노로 더 널리 알려졌다.

한편, 조수미 씨의 초상화를 그린 현동욱 화가는 1977년 전주 전동에서 출생한 전주 토박이다. 전주초교와 신흥중, 신태인고를 거쳐 한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예술학부에서 미술심리치료학과와 영상디자인과를 복수 전공하다가 가정형편으로 중퇴했다.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센터에서 미술심리치료사로 근무하며 작가 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평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불우한 이웃을 돕는 참된 봉사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면서도 작품활동에도 열심이다.

현동욱 작가가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자신이 신흥중학교 재학 중에 미술 선생님 이신 황현호 선생님의 권유로 미술과 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예술에 대한 꿈을 간직하여 틈만 나면 작품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바, 현재 한국미술협회 부안지부 회원으로 열정적인 작품활동과 각종 단체 전시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신예 작가이다.

그동안 준비한 작품을 모아 10여 년 전에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열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며, 매년 단체전에 참가하는 등 예술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현동욱 화가는 지금도 밤낮없이 쉬지 않고 화가로 대성하기 위해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 화가는 "예술 활동을 지속하도록 많은 후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며, 자신도 "조수미 성악가처럼 대성해 전주와 전북 그리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예술가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예술로GREEN전주 아카이빙 전시

전주문화재단, '완벽한 순환' 11월 10일까지 팔복예술공장서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가 후원하는 공공 예술사업 '예술로GREEN전주'의 아카이빙 전시 '완벽한 순환'이 9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다.

'예술로GREEN전주'는 지역 사회의 환경 이슈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 예술가들이 전주시는 도시의 특성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2년 간 작업 활동을 진행했다. 작품들은 환경과 예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와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서준호 예술감독이 총괄로 양쿠라, 김순임 작가들을 비롯해 총 11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양쿠라 '물의 시선' △김순임 '흐르는 공간' △김유진 '자나간 자리' △김현준 '숨덩어리' △신재은 'GAIA (비빔)' △정강 'RENT' △조민지 '결실을 맺다' △김지선 '흘러나가고, 번지고, 넘치고, 흐려지는' △노진아 '익숙해진 달콤함' △김의진 '종이 인간' △유현진 '지구별-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양쿠라 작가의 '물의 시선'은 작가가 직접 전주천의 발원지인 남고산성에서 출발해 새만금까지 약 80km를 카약을 타고 탐험해 물이 보는 인간의 모습을 연출한다. 또 김순임 작가의 '흐르는 공간'은 전주천 상공부에서 12개월 간 작가의 손길로 변화되는 자연의 모



습을 기록한 대지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전주문화재단이 2023년부터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예술로GREEN전주'의 결과"라며 "이번 전시에 담긴 지구환경 위기에 직면한 작가들의 고민과 고뇌를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막식은 26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이나 미래전략팀(070-7711-37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가족공예 나만의 카드지갑 만들기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10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가족공예 미니 카드지갑 만들기 행사를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료체험인 이번 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이번 문화체험은 가족공예에 대한 설명과 공예작업으로 이뤄진다. 소가죽을 이용한 미니 카드지갑을 만드는데 재단이 된 가죽에 전용 바늘과 실을 이용해 바느질 하는 과정을 배운다. /장은성 기자



룩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창작 오페라 '준왕'

익산시청사 준공 기념 특별공연 내달 2일 익산예술의전당서 진행

룩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마련한 창작 오페라 '준왕'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 익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막이 오른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운영하는 무대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선정, 익산시청사 준공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로 마련됐다.

룩스필하모닉은 클래식 음악의 전통성 있는 음악은 물론,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장르와 접목을 시도하는 오케스트라 단

체다. 이에 따르면 창작 오페라 '준왕'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의 비극적인 사랑과 왕국을 둘러싼 갈등을 다룬, 준왕과 이랑의 애절한 로맨스를 중심으로 고조선 마지막 시대의 권력, 인간성,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강렬한 음악과 함께 풀어낸다.

'준왕'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새로운 해석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예술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이며, 웅장한 오케스트라

와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팬텀싱어 출연자로 유명한 테너 최진호(준왕 역)와 바리톤 이한범(위만 역)의 열연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팬텀싱어에서 인상 깊은 무대를 선보였던 이들의 목소리는 오페라 '준왕'에서 다시 한번 관객들의 마음을 울릴 전망이다.

특히 지휘자 조상익의 지휘와 룩스필하모닉의 섬세하고 웅장한 연주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준왕'의 관람권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 수 있다. 관람료는 R석 30,000원, S석 20,000원이며, 예매에 관한 문의는 공식 인스타그램(@lux_phil)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